

2022년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김재식/북로망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2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매일 읽겠습니다/황보름/어떤책	작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보통의 우리라면 약점 잡힐까 봐, 무시당할까 봐 털어놓지 않는 내밀한 이야기를 작가들은 덤덤히 풀어놓는다. 그러면서 삶에는 빛과 어둠이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의 어둠을 감싸 안는다.
3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그림들:모아미술관 도슨트북/ SUN 도슨트/ 나무의마음	마침내 나의 눈이 뜨이고,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4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네모토 히로유키/밀리언서재	남에게는 쉽고 내게는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동안 늘 더 푸르게 보이는 옆집 잔디를 보며 자기부정이라는 덫에 빠지고 맙니다.
5 와이시티작은도서관/전선미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 이꽃님 / 문학동네	네가 뭔가를 잘 해내면 바람이 돼서 네 머를 쓰다듬고, 네가 속상한 날에는 눈물이 돼서 얼굴을 어루만져 줄게.
6 온가족비전도서관/박정은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인플루엔셜 책속 한문장 :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네, 그저 용기가 부족한 거지
7 강촌공원5분걸음예쁜작은도서관/조혜영	모든 운동은 책에 기초한다 / 스테판 츠바이크 / 유투	나도 이제야 제대로 알았지만, 동화란 원래 삶에서 두 번 읽을 수 있는 것이다.
8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희정	전쟁일기: 우크라이나의 눈물 / 올라 그레벤니크	나는 사람을 민족 소속으로 나누지 않는다. 민족이 아닌 행동이 사람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9 호수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스토너/ 존 윌리엄스/ RHK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10 예다움도서관/백정희	불안/알랭 드 보통/은행나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11 그루티기 작은도서관/조현아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 / 마틴래디 / 까치	이 책의 목표는 그들의 제국, 그들의 상상력과 우리가 그들을 상상한 방식, 그들의 의도, 계획, 실패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12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문학동네	우리는 모두 산티아고처럼 나만의 보물을 찾고 싶어한다. 보물을 찾고자 하는 이 소망이 팍팍한 현실을 견뎌낼 힘을 준다.
13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마르타의 일/박서련/한겨레출판	신데렐라의, 콩쥐의, 마리아의 자매는 나쁜 사람으로 기록된다.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르고 시샘이 많은 자매가 있다. 그렇다고들 한다.
14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이승희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조현/휴	모든 순간이 명상입니다. 일이야말로 명상이지요. 매 순간 일하면서 일거수일투족에서 명상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새로운 어린이가 온다/이재복/출판놀이	디지털 이미지가 대세를 이어갈수록,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내는 문학의 의미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언어 이미지는 밖에서 주어지는 영역이 아니다. 마치 밤새 꿈을 꾸고, 꿈 이미지를 언어로 받아 적는 행위와 같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수민	사하맨션/조남주/민음사	휴일에 세 사람 이상의 성인이 모임을 가질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종교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입 밖으로 내뱉거나 쓰거나 인쇄할 수 없는 단어들 이 있었다. 맥락과 관계없이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았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있었고 읽을 수 없는 책이 있었고 걸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이상한 일인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상식을 의심해야 했다.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순례 주택/유은실/비룡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가슴이 찢르르했다. 이 넓은 지구에서 나는 어떻게 순례씨를 만났을까. (p.99)

2022년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누리 작은도서관)/박지혜	순례 주택/유은실/비룡소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2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햇살작은도서관)/이윤진	보통의 노을/이희영/자음과모음	나는 세상이 환절기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이길 바란다. 두꺼운 무채색 패딩도 나폴거리의 파스텔 톤 볼 재킷도 모두가 정답이 되는 세상 말이다
3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소은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류시화/더숲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4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책가방 작은도서관)/하태연	이어령의 마지막수업/김지수/열림원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5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다울림 작은도서관)/박정자	작별인사/김영하/복복서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삶. 자아라는 것이 사라진 삶. 그것이 지금 맞이하려는 죽음과 무엇이 다를까?

2022년 9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해바라기도서관/박면우	산으로 오르는 길/마리안느 뒤비크 글 그림	매일 실랑탕에 오르는 블레로 할머니는 산길을 오르며 버섯도 따고 친구를 줍습니다. 설탕탕에 대해 궁금해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이젠 둘이서 산을 오르게 되지요. 산을 오르면서 할머니는 산의 비밀, 남을 돕는 법, 듣는 법 등을 가르쳐줍니다. 책 속 블레로 할머니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자식이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나보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 쓰임이 보였을까요? 크반이 적어 흐루루 읽었지만 자작한 여우이 낡는 책입니다.
2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과학잡지 에피/이음	과학잡지 에피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잡지입니다. 처음 접한 에피는 3월에 출간된 가까운 우주, 먼 우주에 관한 주제로 인 간이 우주로 나아가고 머물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가벼운 소설책과 같아 보이는 이 잡지는 어려울 수 있는 최신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그동안 알고 있던 과학잡지와는 다른 편집과 구성으로 소설책처럼 가방에 넣어두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출간된 에피 21호도 우주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만 과학잡지를 보게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교양과학으로 이런 과학잡지 한 권쯤은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
3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술이의 추석 이야기/글·그림 이억배 /길벗어린이	술이에 추석 이야기는 1970~'80년대의 전형적인 중산층과 추석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술이 아빠는 가족과 명절을 보내러 시골에 계신 부모님댁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탑니다. 차 막힘이 오래 지속되자 먹을 것을 파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 라면을 먹는 사람 등 일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어렵게 시골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마중 나오고, 가족 모두 모여 음식을 만들고, 햇과일과 햅쌀로 만든 음식으로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고,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성묘가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진 책입니다. 과거의 추석 명절을 떠올리게 하는 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처럼 보름달처럼 풍성한 하가워 보내세요
4	범지기9단지 달빛도서관/이주희	너와 보낸 봄날/김일연	둘이 하나인 정적인 세계, 이해를 넘어서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찰의 기록. 삶과 시, 인간과 자연 우리의 피상적인 눈에 돌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 조화로운 하나라는 깨달음을 느끼게 된다.
5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클레이하우스	작은도서관과 닮은 점이 많은 동네 서점 이야기라 궁금했어요.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공간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형식이 불편한 편의점과 비슷한 소설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이 주는 에너지는 개인과 관계에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어 좋았어요. 작은 도서관 처럼요.
6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저 청소일 하는데요?/김예지/21세기북스 부제-조금 다르게 살아보니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청소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저자의 일상 기록 만화입니다. 삶에 대한 막막함과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느끼는 타인의 시선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명절에 집에 내려오는 아이에게 '장하다', '애쓰다'같은 위로의 말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